

중년기 기혼여성의 노후준비와 위기감이 결혼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and Mid-life Crisi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Middle-aged Women

한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부 교수 이서영**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Hankyong Univ.
Professor Lee, Seo-Yeo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old age and the sense of crisi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mid-life wome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300 women ranging in age from 40 to 59 years residing in Gyeonggi-do. Two hundred and forty-nine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by SPSS PASW 18.0.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ean score on the sense of crisis scale was 2.56 ± 0.65 , representing a medium level. The mean scores for degree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and marital satisfaction were 3.54 ± 0.57 and 3.67 ± 0.88 , which were somewhat high.

Seco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married, middle-aged women. There were primarily differences in the sense of crisis by age cohort (such as women in their 50s) and level of education. Moreov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by marriage duration and

* 본 논문은 2012년도 한경대학교 교비과건 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 주저자, 교신저자 : 이서영(E-mail: seoyeong@hknu.ac.kr)

differences in marital satisfaction by level of education, monthly average income, and employment status.

Third,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variables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middle-aged women included health status and monthly average income as control variables. Mid-life crisis also had a significant effect.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emotional later life had a significant effect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level of sense of crisis and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emotional later life affected the women's marital satisfaction. Other factors did not have a significant affect.

Based on the above results, intervention alternatives are needed to improve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middle-aged women.

Key Words : 노후준비도(degree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중년기위기감(mid-life crisis), 결혼생활만족(marital satisfaction), 중년기 기혼여성(married, middle-aged women)

I. 서론

인생에 있어 중년기는 모순적인 시기이다(이우경·방희정, 2008).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서의 대인관계 및 사회 경제적 지위 등에 있어 절정기에 있는 반면, 더 이상의 성취보다는 하강과 은퇴를 감지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또한 노부모와 성장한 자녀의 중간에 위치한 세대로 개인적 발달에서는 신체적·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중년기는 발달상 ‘전환기’ 이상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년기 위기’라는 용어(Jaques, 1965)로 표현되면서 중년기를 위기의 관점에서 보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위기란 자신이 대처해 나갈 능력 이상의 변화나 문제에 직면하여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타인의 도움을 효과적으로 받지 못할 때 평형각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황경애·김갑숙, 2007).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중년기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시기로서 중년기 여성들은 질병, 배우자의 죽음,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

한 가족구조의 변화 등 이전까지의 삶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갈등과 혼란 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생리적인 변화와 함께 자녀 양육, 가족문제 등으로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던 과거와 비교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중년기에 진입하였을 때 심리·정서적 위기는 자칫 자살 및 우울 등의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년기 세대들은 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위기감을 갖게 된다. 특히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년기 여성들의 경우 노년기는 더욱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중년층은 부모 부양과 자녀교육, 자녀의 취업준비와 결혼으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어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이들이 경험하는 중년기 위기감과 함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노후준비 정도가 결국

은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게 하고 결혼생활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모든 부부의 소망이며 가족생활을 하는 궁극적 목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은 전체 가족성원들의 신체적·정서적·정신적 안녕을 결정하여 가족의 기능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다(Anderson & Sabatelli, 2003).

2012년 총혼인건수 327,000건 대비 총 이혼건수는 114,000건으로 34.8%를 차지하며 주 이혼연령은 남녀모두 40대로 중년기 이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2). 또한 2012년 처음으로 혼인한지 20년 이상된 부부의 이혼구성비가 26.4%로 혼인한지 4년 미만인 부부의 이혼보다 높았으며 결혼생활 30년 이상된 부부의 이혼증가율도 8.8%로 가장 큰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2). 이렇듯 결혼생활 20년~30년을 지속해온 중년기 부부의 이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사회현상을 보더라도 중년기 기혼여성의 결혼생활만족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늘어만 가는 중년기 이혼과 같은 결혼해체를 막고 이들의 결혼생활만족을 위해서는 중년기 여성이 경험하는 위기감과 중년기부터 대비가 필요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로는 최근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성공적 노후나 노후준비와 관련한 연구들은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준비 또는 노후준비 인식에 관한 연구들(강유진, 2005; 김순미·고선강, 2012; 나지나·백승애·신은경·김미혜, 2010; 박창제, 2008; 안현선 외, 2009; 양순미·홍숙자, 2002; 이용재, 2013; 임경자, 2002; 이여봉, 2012)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중년기 위기감에 관한 연구들(고효정·오명옥·김혜영, 2000; 김명자, 1989; 김애순·윤진, 1993; 최경란, 2006;

홍달아기·이남주, 2006)과 결혼생활만족에 관한 연구들(김미령, 2009; 김민희·민경환, 2007; 이여봉, 2010; 조성희·박소영, 2010; 최명민, 2010)이 있다.

또한 연구대상면에서 중년기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강유진, 2005; 김순미·고선강, 2012; 배문조, 2011; 임경자, 2002)와 중년기 여성(기혼과 미혼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 연구(고효정·오명옥·김혜영, 2000; 나지나 외, 2010; 안현선 외, 2009; 이여봉, 2012; 홍달아기·이남주, 2006)가 있긴 하나 중년기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오명옥·고효정·박창자, 2000; 최경란, 2006). 본 연구는 종속변인이 결혼생활만족이고 노후준비와 위기감의 독립변인 척도문항들이 상당수 부부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혼여성과 사별이나 이혼가구를 제외한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중년기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중년층의 노후준비 및 위기감에 관한 개별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도와 위기감을 함께 변인으로 하여 현재 결혼생활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여성의 결혼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노후준비도와 위기감 변인을 함께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노후준비도의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3개의 하위영역(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정서적 준비)으로 나누어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중년기 위기감과 노후생활 준비가 결혼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와 관련한 정책적·실천적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년기 기혼여성의 위기감과 노후준비 정도 및 결혼생활만족도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년기 기혼여성의 위기감과 노후 준비정도 및 결혼생활만족도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중년기 기혼여성이 경험하는 위기감과 노후생활 준비는 이들의 결혼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중년기 기혼여성의 위기감

인간발달은 연속적 변화의 과정으로 환경적, 심리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 지므로 생활연령과 가족생활주기가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나 중년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쉽지 않아 학자마다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김명자, 1989). 일반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40세에서 60세 사이를 중년기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중년기 기간을 확장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 적어도 앞뒤로 10년 정도를 더 하여 30세에서 75세 사이를 중년기로 보기도 한다(Lamanna & Riedmann, 2009). 국내 선행연구들은 생활연령과 가족생활주기의 두 가지 관점에서 중년기를 복합적으로 구분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고효정 외, 2000; 김명자, 1989; 최경란, 2006)에서 보편적으로 중년기를 40~59세를 중년기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구분한 40세~59세에 해당하는 시기를 중년기로 정의하고자 한다.

생애발달적 측면의 중년기는 가족의 관점에서는 자녀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는 시기이며, 경제적으로는 가장 소득이 높고 여유로운 시기이고, 경제적으로는 가장 소득이 높고 여유로운 시기이고, 노환이 있는 노부모에 대한 돌봄의 책임이 생기는 시기였

다(Lamanna & Riedmann, 2009). 중년기는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의 중간에 위치하는 세대로 두 세대 모두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느끼는 시기이며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시기로 신체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며 가족관계와 세대관계의 재구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김애순·윤진, 1993; 류가미, 2008). 특히 중년기 기혼여성은 주부역할의 비구조성과 비전문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자녀의 독립 이후에 겪는 허탈감, 무력감 등으로 자아개념이 낮아지고(신기영, 1991), 갱년기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신체적 특성인 폐경과 관련되어 여성다움의 상실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증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Lennon, 1980). 또한 가족관계 내에서도 노부모와 자녀, 남편 사이에서 다중적인 역할을 하면서 책임은 큰 반면 직업적 성취에 몰두하면서 스트레스와 위기감을 느끼는 남편과 사춘기와 청년기를 거치면서 부모의 지배와 간섭을 벗어나려는 자녀들 사이에서 중년기 기혼여성은 소외감과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임경자, 2002). 또한 중년기 기혼여성은 자녀에 대한 염려, 남편과 노부모 걱정, 자아실현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더 심한 중년기 위기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가장 대표적인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 문제로 우울증을 들 수 있다(Costa & McCrae, 1980).

이와 같은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개인이 갖는 신체적, 환경적 변화가 중년기 여성에게 다양한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이 중년기 여성이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후회감, 실망감, 초조감, 허탈감 등의 종합적 개념 즉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는 심리상태를 중년기 ‘위기감’이라 일컫는다(김명자, 1989; 김애순, 1993). 이러한 위기감은 보다 구체적으로 중년기에 느끼거나 경험하는 ‘일상적 무의미감’이나 ‘현재 생활에 대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Farrell & Rosenberg, 1981). 한편 보편적인 중년기 위기감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년기의 위기 경험 유무는 오로지 개인이 처한 상황과 개인이 갖는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Spanier & Lewis, 1980) 굳이 위기라고 보지 않고 전환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류가미, 2008; 신기영, 1991; Costa & McCrae, 1980).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이러한 중년기 기혼여성의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연령, 가계소득, 교육정도, 직업유무, 종교유무, 건강상태, 결혼지속년수, 자녀수 등 총 8개의 변인이 주된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기감이나 우울정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김명자, 1989; 오명옥·고효정·박청자, 2000)와 오히려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리적 복지감을 높게 인지하여 위기감이 감소한다는 상반된 결과(신기영, 1991)를 보이고 있다. ‘가계소득’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위기감이 낮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김명자, 1989; 김애순·윤진, 1993; 임경자, 2002)이다. 특히 중년기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적 압박이 큰 시기이므로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이러한 압박의 정도가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소득이 중년기여성의 심리적 안정감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위기감과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김애순·윤진, 1993; 오명옥 외, 2000) 반면,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으로 인하여 학력이 높은 경우 자녀 독립기에 더욱 위기감을 겪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기도하다(Thompson, 1980). ‘취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취업여성이 비취업 여성에 비해(김애순·윤진, 1993; 홍달아기·이남주, 2006) 위기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취업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오명옥 등, 2000).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는 종교가 있는 집단의 위기감 수준이 더욱 낮게 나타났으나(홍달아기·

이남주, 2006; 오명옥 외, 2000) 다른 한편, 김명자(1989)의 연구에 따르면 종교유무가 의미있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위기감이 높게 나타났으며(김명자, 1989; 김애순, 1993; 오명옥 외, 2000; 임경자, 2002) ‘결혼기간’이 길수록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오명옥 외,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여성의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이들 변인들을 모두 분석에 포함하였다.

2. 노후생활 준비

노후생활준비란 노후생활에서 직면할 문제들에 대해 노년기에 이르기 전에 행하는 대비를 일컫는다(이여봉, 2012).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노후의 결혼생활만족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만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직장생활 기간의 축소는 은퇴 이후의 경제적 안정과 독립적 생활 유지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년층은 부모 부양과 자녀교육, 자녀의 취업준비와 결혼, 자녀의 독립시기 지연 등으로 노부모부양과 자녀양육에 다른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른 자신들의 노후생활준비는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고령 조사대상자의 약 68%가 노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하였다(국민연금관리공단, 2009). 이 외 대부분의 연구들(나지나 외, 2010; 박창재, 2008; 이용재, 2013)에서 현재 중년기에 속해있는 세대들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노후생활준비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3개의 하위영역(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

비, 정서적 준비)으로 나누어 경제적 준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준비 등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적을수록,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될수록 노후 생활준비가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결혼생활만족

근래에 이르러 서구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낮은 결혼만족이 결혼해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해 온 중년기의 이혼이나 노년기의 황혼이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통계청, 2012). 이러한 결혼해체는 이혼 당사자들만이 아닌 자녀와 가족 모두에게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Lamanna & Riedmann, 2009).

결혼만족(marital satisfaction)이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부부의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Johnson et al., 1986)를 의미한다. 만족한 결혼이나 성공적인 결혼이 어떤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결혼만족과 같은 결혼생활의 질은 복합적인 개념으로써 부부의 결혼내·외적 체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Bradbury et al., 2000). 김애순(1993)은 부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중년여성의 정서적 위기감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김윤정·최윤희(2004)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갱년기증상과 우울증이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중년기의 위기감을 잘 극복한 사람은 결혼만족감이 상승하여, 실제로 40대 후반이나 50대는 결혼만족도가 20대를 능가한다는 연구결과(Skolnick, 1983)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중년기에 경험하는 위기감은 결혼생활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선행연구를 통해 결혼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수준이 높거나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결혼만족이 높았으며(조성희·박소영, 2010; 최명민, 2010; Dakin & Wampler, 2008) '성별'은 일관되게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현경자, 2004; Schumm, Webb & Bollman, 1998). '연령'과 결혼만족도는 반비례하며(이정은·이영호, 2000), 30대 여성은 40~60대 여성보다, 40대 여성은 50~60대 여성보다 더 높은 결혼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김미령, 2009).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고(이정은·이영호, 2000; 조성희·박소영, 2010; Orathinkal & Vansteenwegen, 2007), 학력이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Kalmijn, 1999) 교육수준은 결혼만족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Grames et al., 2008). '건강상태'는 기혼남녀의 결혼만족에 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현경자, 2004; Grames et al., 2008),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만족에 있어서는 결혼초기에 만족도가 가장 높고 중년기에 이르면 결혼만족이 더욱 감소한다고 하였으나(이인수·유영주, 1986), 오히려 결혼기간에 따라 결혼만족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다(White & Booth, 1991). 반대로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만족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진다는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다(조성희·박소영, 2010; Orathinkal & Vansteenwegen, 2007). 또한 결혼만족이 U자 형태의 변화를 보인다고 하였는데 신혼기에 높았던 만족도는 첫 자녀 출생이후 감소하였다가 자녀가 출가한 이후에 다시 높아진다(박성호, 2001; Macky & O'Brien, 1999)고 하여 일관된 연구결과를 찾기는 어렵다.

'자녀수에 따른 부부갈등의 차이는 없지만(김갑숙·최외선, 1992) 자녀에 따른 결혼생활만족은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조성희·박소영, 2010; Bradbury, Fincham, and Beach, 2000)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조정문, 1995; White & Booth, 1991)가 공존한다. '직업유무'에 있어서는 여성의 직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조정문, 1995)가 있는 반면에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중년기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현경자, 2004)도 있어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끝으로 '종교유무'는 종교가 있는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결혼안정성과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데에 대부분 의견이 일치한다(김나비·유영주, 1999; 조성희·박소영, 2010; Orathinkal & Vansteenwegen, 2007).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결혼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일반적 특성변인인 경제수준,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결혼기간, 자녀수, 직업유무, 종교유무 등 8개 변인 외에, 가구(가족)형태 등을 포함한 총 9개 변인을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중년기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성별은 제외시켰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1) 결혼생활만족도 : 종속변인

QMI(Quality of Marriage Index, Norton, 1983)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Norton이 기존의 결혼만족 질문지들의 항목을 종합하여 6개 평가적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 내용은 ①우리는 좋은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②나의 배우자와 나의 관계는 안정적이다. ③우리의 부부 유대는 강하다. ④나는 나의 배우자로 인하여 행복하다 ⑤나는 정말로 내가 나의 배우자와 운명

을 같이 하는 한 팀을 이루었다고 느낀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측정되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9534$ 로 높게 나타났다.

2) 노후준비도 : 독립변인

본 연구에서는 배계희(1988)가 개발한 척도와 황승일(2000)이 개발한 척도를 참고로 하여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노후준비의 3영역으로 나누어 측정된 임희정(2002)의 노후준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신체적 준비 3문항(①노후의 질병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②노후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 ③노후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조절하고 지나친 음주, 흡연은 피하려고 한다.) 정서적 준비 4문항(①노후의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해 현재 배우자와의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②노후의 행복한 가족생활을 위해 현재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③노후에 언제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거나 그런 친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④은퇴 후나 혹은 가까운 사람이 떠나갔을 때 소외감, 고독에 견디는 힘을 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제적 준비 3문항(①노후대책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 ②노후의 안정된 지출을 위해 매사에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③노후에 살 주택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등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며 전체 노후준비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5$ 였다. 각 영역별로는 신체적 준비가 Cronbach's $\alpha=.63$, 정서적 준비가 Cronbach's $\alpha=.65$, 경제적 준비가 Cronbach's $\alpha=.76$ 이었다.

3) 위기감 : 독립변인

위기감 척도는 중년기에 처한 느낌, 생활전반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관련된 경험을 질문하는 Farrell과 Rosenberg(1981)의 중년기 위기감척도(Middle Life Crisis Scale)를 바탕으로 김명자(1988)가 개발한 위기감 측정 도구를 오명옥 등(2000)이 다시 중년기 여성에게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요인은 ‘일상적 무의미감’(7문항), 제2요인은 ‘현재 생활에 대한 개념’(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요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중년기 공허감과 허탈감을 경험하고 있다 ②지급하고 있는 나의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③ 우울함과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다. ④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지루한 생활이라는 생각이 든다. 등이고 제2요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지난 생활에 대하여 후회스러운 일이 많다. ②근심과 걱정으로 깊은 잠을 못 이룰 때가 있다. ③현재의 생활이 행복하다고 느낀다. ④남편과 자녀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등이다. 각 문항은 5점척도에 따라 측정되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기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78$ 로 나타났다.

4) 사회인구학적 변인: 통제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선행연구 검토결과,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연령, 가계소득, 교육정도, 직업유무, 종교유무, 건강상태, 결혼지속년수, 자녀수, 가족유형 등 총 9개의 변인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의 개념정의에 비추어 40세에서 59세에 해당하는 중년기 기혼여성 300

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수도권에 소재한 여성회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노래교실을 이용하는 중년기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무작위 표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집합조사와 배포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응답자가 원할 경우 조사원이 설문지를 작성해 주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내용을 검토한 후 분석에 적합한 설문지를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 24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위기감과 노후준비정도, 결혼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 빈도분석과 기술적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위기감과 노후준비정도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이용하였다. 분석도구로는 SPSS사의 PASW 18.0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령대, 교육수준, 종교유무, 직업유무, 결혼지속년수, 건강상태, 자녀수, 월평균소득의 빈도분석을 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결과, 40대(65.1%)가 50대(34.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43.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대졸(26.9%), 초대졸(2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는 70.3%가 종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유무는 시간제를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82.3%로 높게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49)

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빈도(%)
연령 대	40대	162(65.1)	결혼 지속 년수 (년)	10년 이하	14(5.6)
	50대	87(34.9)		11년~20년	82(32.9)
교육 수준	초졸	1(.4)		21년~30년	138(55.4)
	중졸	11(4.4)		31년 이상	15(6.0)
	고졸	107(43.0)	건강 상태	전혀 건강하지 않는편	3(1.2)
	초대졸	52(20.9)		건강하지 않는 편	14(5.6)
	대졸	67(26.9)		그저 그렇다	39(15.7)
	대학원졸	11(4.4)		건강한 편	154(61.8)
종교 유무	없다(무)	74(29.7)	자녀수 (명)	매우 건강한편	39(15.7)
	있다(유)	175(70.3)		1명 이하	22(8.8)
직업 유무	직업 무	44(17.7)		2명	172(69.1)
	직업 유	205(82.3)	3명 이상	55(22.1)	

주) 월평균소득(만원/월): 평균 437.0, 표준편차 187.1, 최소값 100, 최대값 1,400

결혼지속년수는 21년~30년 이하(55.4%)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11년~20년 이하(32.9%), 31년 이상(6.0%)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않는 편이 6.8%에 불과하고 대체적으로 건강한 편(77.5%)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69.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3명 이상(22.1%)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437만원으로 나타났고 최소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최대 월평균소득은 1,400만원 이었다.

2. 위기감, 노후준비도 및 결혼생활만족도의 전반적 경향

중년기 위기감, 노후준비도 및 결혼생활만족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중년기 기혼여성의 위기감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서 2.56점 중간정도 수준으로 위기감 수준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위기감에 관한 기존 연구(고효정 외, 2000; 오명옥 외, 2000; 최경란, 2006; 홍달야기·이남주, 2006)에서 중간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결과(3.03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량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중년기위기감	249	2.556	.657	1.00	4.64
노후준비도	249	3.538	.573	1.83	5.00
-신체적	249	3.335	.744	1.00	5.00
-정서적	249	3.726	.648	1.78	5.00
-경제적	249	3.554	.788	1.33	5.00
결혼생활만족도	249	3.667	.884	1.00	5.00

~3.41점)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노후준비도는 5점 리커트 척도에서 3.54점으로 ‘그런대로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안현선 외(2009)의 경우에 전체평균 2.45점으로 나타났고, 최경란(2006)의 경우에 전체평균 2.5점으로 중간이하 수준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 결과이며 김윤정·최윤희(2004)의 연구결과와 나타난 3.35점, 배문조(2011)의 연구결과 나타난 3.45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노후준비도(3.72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노후준비도가 3.55점이었고 신체적 노후준비도(3.33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결혼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3.67점으로 다소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중간 이상의 결혼만족도를 보인 김윤정·최윤희(2004), 조성희·박소영(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했고 결혼초기에 만족도가 가장 높고 중년기에 이르면 결혼만족이 더욱 감소하게 된다고 한 이인수·유영주(1986)의 연구결과나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만족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진다는 Orathinkal & Vansteenwegen(2007)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주기에 따라 결혼만족이 U자 형태의 변화를 나타내어 신혼기에 높았던 결혼만족도는 첫 자녀 출생 이후 감소하였다가 후반기에 다시 높아진다고 한 연구결과(박성호, 2001)와 반대로 생활주기에 따라 결혼만족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Costa & McCrae, 1980)도 있어 일관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

〈표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위기감과 노후준비 정도 및 결혼생활만족도 차이

구분	위기감		노후준비		결혼생활만족도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연령대	40대	2.482	-2.474 *	3.513	-.941	3.685	.450
	50대	2.696		3.585		3.632	
교육수준	고졸 이하	2.701	3.393 ***	3.547	.238	3.565	-1.731 *
	초대졸 이상	2.424		3.530		3.760	
직업유무	직업무	2.552	-.049	3.655	1.488	3.886	1.826 **
	직업유(시간제포함)	2.558		3.513		3.620	
결혼지속 기간	단기(20년 이하)	2.515	-.795	3.431	-2.351 *	3.598	-.972
	장기(21년 이상)	2.583		3.605		3.710	
자녀수	1명 이하	2.495	.371	3.537	.481	3.482	1.229
	2명	2.580		3.517		3.645	
	3명 이상	2.506		3.605		3.807	
종교유무	종교무	2.655	1.539	3.505	-.597	3.516	-1.590
	종교유	2.515		3.552		3.730	
월평균 소득1)	300만원 미만(a)	2.921	11.181 ***	3.291	8.303 ***	3.026	16.229 ***
	300~500만원미만(b)	2.608		3.477		3.643	
	500만원 이상(c)	2.370		3.691		3.925	

주1) 소득 사후검증(scheffe): (a)와 (b), (a)와 (c)간 유의한 차이, 즉, (b)와 (c)는 동일집단군

*p<.05, **p<.01, ***p<.001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위기감과 노후 준비도 및 결혼생활만족도 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변인으로 연령대, 교육수준, 직업유무, 결혼지속기간, 자녀수, 종교유무, 월평균소득에 따른 위기감과 노후준비도 및 결혼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위기감과 관련하여서는 응답자의 연령대 ($p<.05$)와 교육수준($p<.001$), 월평균소득($p<.001$)이 중년기 위기감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40대 중년기 기혼여성보다 50대 중년기 기혼여성의 위기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이하의 응답자가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보다 위기감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월평균소득이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집단보다 300만원 미만의 저소득집단의 위기감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후준비도에 있어서는 결혼지속기간 ($p<.05$)과 월평균소득($p<.001$)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결혼지속기간이 비교적 장기적(21년 이상)인 경우가 노후준비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결혼지속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노년기에 점점 더 다가서가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에 따라 노후준비도 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월평균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도 또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결혼생활만족에 있어서는 교육수준 ($p<.05$)과 직업유무($p<.01$), 월평균소득($p<.001$)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고졸이하 보다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결혼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을 가진 경우보다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결혼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에 이들의 결혼생활만족도

도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4. 중년기 위기감과 노후준비도가 결혼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년기 위기감과 노후준비도가 중년기 기혼여성의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관계의 분석결과 r값이 .6이상이 되는 변인들이 발견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존재여부는 분산팽창계수(VIF)¹⁾가 10 이하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의 최대값은 결혼지속년수가 1.832으로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로는 건강상태와 월평균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고,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종교유무, 직업유무, 결혼지속년수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중년기 기혼여성의 결혼생활만족에 미치는 위기감과 노후준비도 변인의 영향력의 정도는 40.6%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중 위기감은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고, 노후준비도는 정서적 준비($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 기혼여성이 느끼는 위기감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정서적 노후준비가 잘 되어있을수록

1) 상관관계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가 있더라도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확정지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대신 VIF(분산팽창계수)나 tolerance(공차한계)값을 사용하였다.

〈표 4〉 중년기위기감과 노후준비도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 분	B	β	t	B	β	t	VIF	
통제 변수	연령(세)	-.008	-.044	-.578	.004	.012	.304	1.827	
	교육정도	.037	.043	.658	-.017	.050	-.348	1.343	
	자녀수(명)	.103	.075	1.268	.076	.071	1.071	1.075	
	종교	.133	.069	1.176	.083	.100	.828	1.061	
	직업유무	-.216	-.093	-1.540	-.182	.123	-1.486	1.115	
	결혼지속년수	.026	.020	.260	.017	.087	.192	1.832	
	건강상태	.228	.204	3.385 ***	.059	.064	.931	1.293	
	소득(만원/월)	.001	.300	4.763 ***	.001	.000	3.704 ***	1.324	
독립 변수	위기감				-.624	.080	-7.788 ***	1.412	
	노후 준비	신체적				-.073	.071	-1.024	1.420
		정서적				.178	.081	2.202 *	1.390
		경제적				.022	.075	.301	1.757
(상수)			2.205 **			3.866 ***			
R ²			.199			.406			
adj. R ²			.172			.376			
F			7.459 ***			13.439 ***			

*p<.05, **p<.01, ***p<.001

이들의 결혼생활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위기감과 노후준비정도가 이들의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된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감, 노후준비도 및 결혼생활만족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중년기 기혼여성의 위기감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서 2.56점 중간정도 수준으로 위기감 수준이 높지 않게 나타나서 중년기 기혼여성들이 비교적 중년기에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중년기 위기감에 관한 기존 연구(오명옥 외, 2000; 최경란, 2006; 홍달야기·이남주, 2006)에서 중간 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3.09~3.41점)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중년기 위기감은 어떤 새로운 사건이나 계기가 있어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연속적인 발달 단계 과정 속에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심리적 변화 현상으로 중년기를 일시적 적응을 요하는 전환기로 보는 연구자들(고효정 외, 2000; 박준희, 2004; 홍달야기·이남주, 2006; Hunter & Sundel, 1994)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를 부정적인 위기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시기로 보기 보다는 삶의 주기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하는 전환의 시기로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노후준비도는 5점 리커트 척도에서 3.54점으로

‘그런대로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안현선 외(2009)의 경우에 전체평균 2.45점으로 나타났고, 최경란(2006)의 경우에 전체평균 2.5점으로 중간이하 수준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 결과이며 김윤정·최윤희(2004)의 연구결과와 나타난 3.35점, 배문조(2011)의 연구결과와 나타난 3.45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노후준비도(3.72점)가 가장 높게 나타나 배문조(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했다. 다음으로 경제적 노후준비도가 3.55점이었고 신체적 노후준비도(3.33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하여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노후준비 및 노후인식에 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노후준비도가 향상되고 있는데 따른 결과로 사료되어진다(조선일보, 2011. 12. 31).

한편 결혼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3.67점으로 다소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중간 이상의 결혼만족도를 보인 김윤정·최윤희(2004), 조성희·박소영(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했고 결혼초기에 만족도가 가장 높고 중년기에 이르면 결혼만족이 더욱 감소하게 된다고 한 이인수·유영주(1986)의 연구결과나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만족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진다는 Orathinkal & Vansteenwegen(2007)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결혼만족과 관련하여서는 생활주기에 따라 결혼만족이 U자 형태의 변화를 나타내어 신혼기에 높았던 결혼만족도는 첫 자녀 출생 이후 감소하였다가 후반기에 다시 높아진다고 한 연구결과(박성호, 2001)와 반대로 생활주기에 따라 결혼만족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White & Booth, 1991)도 있어 일관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변인으로 연령대, 교육수준, 직업유무, 결혼지속기간에 따른 위기감

과 노후준비도 및 결혼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 보면, 먼저 위기감과 관련하여서는 응답자의 연령대($p<.05$)와 교육수준($p<.001$), 월평균소득($p<.001$)이 중년기 위기감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40대 중년기 기혼여성보다 50대 중년기 기혼 여성의 위기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이하의 응답자가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보다 위기감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월평균소득이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집단보다 300만원 미만의 저소득집단의 위기감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기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결과(김명자, 1988; 신기영, 1991; 오명옥 외, 2000)와 유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졸업과 취업으로 인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시기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고(김애순, 1993), 부모-자녀 관계가 종속적이며 미분화되어 있어 자녀들이 떠나가는 ‘빈둥우리 시기’에 위기감이 더욱 표출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위기감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결과(김명자, 1989; 김애순·윤진, 1993; 오명옥 외, 2000)와도 일치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위기감을 느끼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수집의 기회가 많고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위기감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위기감 수준이 낮다고 보고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결과(김애순, 1993; 김경신·김정란, 2001; 오명옥 외, 2000)와 일치하였다. 한편 그 외 변인들(직업유무,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결혼지속기간, 자녀수)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아 전일제 직업이 있을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을수록, 결혼기간이 길수록 위기감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김애순, 1993; 오명옥 외, 2000)와는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노후준비도에 있어서는 결혼지속기간

($p<.05$)과 월평균소득($p<.001$)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결혼지속기간이 비교적 장기적(21년 이상)일수록, 월평균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도 또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월평균가계소득과 경제수준이 노후생활준비정도에 강한 정적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곽인숙·홍성희, 2013)와 동일했다. 한편 그 외 변인들(교육수준, 직업유무,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자녀수)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취업 여성에 비해 취업한 여성일수록 노후준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이여봉, 2012)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끝으로 결혼생활만족에 있어서는 교육수준($p<.05$)과 직업유무($p<.01$), 월평균소득($p<.001$)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고졸 이하 보다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결혼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을 가진 경우보다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결혼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에 이들의 결혼생활만족도도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음은 결혼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이정은·이영호, 2000; 조성희·박소영, 2010; Orathinkal & Vansteenwegen, 2007)와도 일치했다. 또한 월평균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기존의 대부분의 선행연구(김나비·유영주, 1999; 이여봉, 2010; 조성희·박소영, 2010; 최명민, 2010) 결과와도 일치했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수로는 건강상태와 월평균소득이 결혼생활만족과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밝혀진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월평균소득 수준이나 주관적인 경제

상태는 결혼만족도에 강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일반적이다(김나비·유영주, 1999; 이여봉, 2010; 조성희·박소영, 2010; 최명민, 2010).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한 중년기 여성에게 있어서의 주관적 건강상태 및 질병유무는 정신적 공허감이나 허탈감, 불안감, 노화에 대한 두려움 등을 동반하여 중년기 적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만족에도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 여겨진다.

중년기 기혼여성의 결혼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감과 노후준비도 변인의 설명력은 40.6%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중 위기감은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고, 노후준비도는 정서적 준비($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 기혼여성이 느끼는 위기감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정서적 노후준비가 잘 되어있을수록 이들의 결혼생활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위기감과 정서적 노후준비는 중년기 기혼여성의 결혼생활만족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결혼생활만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날로 늘어가는 이혼율을 줄이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년기 기혼 여성이 경험하는 중년기 위기감과 정서적 노후준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들이 느끼는 위기감 수준을 낮춰주고 정서적 노후준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중년기는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상실감과 불안을 수반하는 시기이지만 생애주기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중년기에 경험하는 ‘위기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긍정적인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배우자, 자녀, 친구, 이웃 등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줄여 나가고 정서적 유대 및 교류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 방안이 확대·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내 평생교육관이나 여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중년기 기혼여성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자아정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자아성장 프로그램,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및 중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군산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중년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과 ‘중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속초시의 경우는 ‘중년기 위기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 에도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주로 성역할 전이, 대화법(의사소통), 성생활(중년의 성), 문제해결능력, 중년기 위기와 대처방법, 심리검사를 활용한 나와 배우자의 차이 알기(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기감을 느끼더라도 이러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수집의 기회를 갖게 되고 문제나 위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위기감이 낮아지게 되고 적응이나 대처능력이 향상되므로 이로 인해 갈등을 줄이고 문제해결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는 꼭 필요하다. 경제적·신체적 노후준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성의 경우에 이러한 ‘정서적 노후준비’가 이들의 결혼생활 만족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둘째,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을 불러오는 주된 구체적 요인들은 다름 아닌 우울감, 공허감, 허탈감, 불안감 등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우울감이나 공허감 수준이 높은편이며 개인의 ‘우울감’ 정도가 결혼만족과 상관이 있으며 (Grames et al., 2008), 심한 우울감은 결혼만족도

를 떨어뜨린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John, & Montgomery, 2009). 따라서 이들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내 정신건강지원센터, 보건소,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의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증진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들이 떠나가는 ‘빈둥우리 시기’(50대)에 가장 위기감이 높게 표출된 점을 감안하여 위기감과 관련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 50대 여성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여 실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검사결과 ‘위기감’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경우에도 우선적인 교육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대부분 겪게 되는 중년기와 중년기 위기감을 잘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기감을 주변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나 각자에게 맞는 취미나 여가활동과 같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역적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일반화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며, 결혼만족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개념)이나 가족관계특성(부부관계, 고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변인과 같은 보다 다양한 여러 변인들을 포함하여 연구를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1) 강유진(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4), 112-128.

- 2) 고효정·오명옥·김혜영(2000).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삶의 질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6(4), 619-631.
- 3) 김갑숙·최외선(1992).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33-143.
- 4) 김경신·김정란(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자아 정체감 및 위기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4), 105-120.
- 5) 김나비·유영주(1999). 기혼 취업여성의 결혼생활 공평성 인지도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81-106.
- 6) 김명자(1988).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_____(1989). 중년기 연구. 서울: 교문사.
- 8) 김미령(2009). 연령대에 따른 여성의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6, 36-62.
- 9) 김민희·민경환(2007). 중년기부부의 애착과 결혼만족: 애착유형과 결혼만족의 매개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 (1), 213-233.
- 10) 김순미·고선강(2012). 중년기 가정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생활 준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59-76.
- 11) 김애순(1993). 중년기 위기감(3):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지, 13(2), 1-14.
- 12) 김애순·윤진(1993). 중년기 위기감(1); 그 시기 확인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3(1), 1-16.
- 13) 김윤정·최윤희(2004).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4, 197-213.
- 14) 국민연금관리공단(2009). 국민연금 중장기재정전망. 국민연금관리공단.
- 15) 광인숙·홍성희(2013).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 설계 인식과 준비도: 전·후기집단 비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2), 147-172.
- 16) 나지나·백승애·신은경·김미혜(2010).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29-54.
- 17) 대릴 샤프(2006). 류가미 역(2008). 용, 중년을 말한다. 서울: 북북서.
- 18) 박성호(2001). 부부의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및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박준희(2004). 기혼남녀의 성격특성, 가족스트레스, 여가활동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 21) 배계희(1988). 중년기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배문조(2011). 중년기의 성공적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노후생활준비태도가 노후생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45-61.
- 23) 신기영(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안현선·김효민·안진경·김양희(2009).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도와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137-155.
- 25) 양순미·홍숙자(2002). 중년기 농촌여성의 노후준비와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41-149.
- 26) 오명옥·고효정·박창자(2000).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자아정체감과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4(1), 17-31.
- 27) 이우경·방희정(2008). 사회, 정서발달: 성인기 여성의 스트레스, 마음챙김, 자기-자애, 심리적 안녕감 및 심리증상 간의 관계. 한국

- 심리학회, 21(4), 127-146.
- 28) 이어봉(2010). 부부역할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연령범주별 분석. *한국인구학*, 33(1), 103-131.
- 29) _____(2012). 중년여성의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세대. *가족과 문화*, 24(1), 31-70.
- 30) 이용재(201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특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5), 253-261.
- 31) 이인수·유영주(1986). 결혼만족도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1-14.
- 32) 이정은·이영호(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33) 임경자(2002).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4) 임희정(2002). 중년층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5) 조선일보(2011). 미리 설계하면 장수는 리스크 아닌 축복. 2011. 12. 31. 11면.
- 36) 조성희·박소영(2010).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9, 149-174.
- 37) 조정문(1995). 결혼생활의 공평성 인지와 결혼만족. *한국사회학*, 29, 559-584.
- 38) 최경란(2006).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관련변인.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9) 최명민(2010). 결혼행복감의 결정요인 분석: 소득수준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9, 85-114.
- 40) 통계청(2012). 2012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41) 황경애·김갑숙(2007). 인지-행동 집단 미술치료가 중년기 위기 여성들의 우울 및 정서적 위기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4(2), 295-318.
- 42) 황승일(2000). 초기노인의 노후관련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3) 홍달아기·이남주(2006). 중년기여성의 위기감과 대처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5(2), 227-237.
- 44) 현경자(2004). 기혼남녀의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56(4), 239-268.
- 45) Anderson, S. A. & Sabatelli, R. M.(2003). *Family interaction: A multigenerational development perspective*. New York: Pearson Education, Inc.
- 46) Bradbury, T. N., Fincham, F. D. & Beach, S. R.(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964-980.
- 47) Costa, P. T. & McCrae, R. R.(1980). *Still stable after all these years: Personality as a key to some issues in adult and old age.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3, 65-102.
- 48) Dakin J. & Wampler, R.(2008). Money doesn't buy happiness, but helps: marital satisfacti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demographic differences between low and middle income clinic coupl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6, 300-311.
- 49) Farrell, M. P. & Rosenberg, S. D.(1981). *Mean of midlife*. Boston : Simon and Schuster.
- 50) Grames, H. A., Miller, R. B., Robinson, W. D., Higgins, D. J. & Hinton, W. J.(2008). A test of contextual theory : the relationship among relational ethics, marital satisfaction, health problems, and depression. *Contemporary*

- Family Therapy*, 30, 183-198.
- 51) Hunter, S. & Sundel, M.(1994). Midlife for women: A new perspective. *Journal of Women & Social Work*, 9(2), 113-128.
- 52) Jaques, E.(1965). Death and the midlife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6, 502-514.
- 53) John, P. D. & Montgomery, P. R.(2009).Marital status, partner satisf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men and women. *La Revue Canadienne de Psychiatrie*, 54(7), 487-492.
- 54) Johnson, D. R., White, L. K., Edwards, J. N. & Booth, A.(1986). Dimensions of Marital Quality : toward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Refinement. *Journal of Family Issue*, 7, 31-49.
- 55) Kalmijn, M.(1999).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the perceived stability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409-421.
- 56) Lamanna, M. A. & Riedmann, A.(2009). *Marriages and Families: Making Choices in a Diverse Society(10th ed.)*. Thomson Learning Inc.
- 57) Lennon, M. C.(1980). Psychological Reaction to Menopause: A Sociological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olumbia University.
- 58) Macky, R. A. & O'Brien, B. A.(1999). *Marital conflict management : gender and ethnic differences*. In P. L. Ewalt et al.(Eds.). Washington DC. : NASW, Multicultural Issues, 2, 33-49.
- 59) Norton, R.(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ruary, 141-151.
- 60) Orathinkal, J. & Vansteenwegen, A.(2007). Do demographics affect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33, 73-85.
- 61) Schumm, W. R., Webb, F. J. & Bollman, S. R.(1998). Gender and marital satisfaction :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Psychological Reports*, 83(1), 319-327.
- 62) Skolnick, A. S.(1983). *Family in transition: thinking marriage, sexuality, child rearing, and family organization*. 4th ed. Boston: Little Brown.
- 63) Spanier, G. B. & Lewis, R. A.(1980). Marital Quality: a review of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825-839.
- 64) Thompson, M. J.(1980). Identity attainment in midlife females: An assessmen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65) White, L. K. & Booth, A.(1991). Divorce over the life course. *Journal of Family Issues*, 12, 5-21.

- 투 고 일 : 2013년 12월 31일
- 심 사 일 : 2014년 1월 6일
- 심사완료일 : 2014년 1월 22일